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3 주차 (1:43~2:25)

(2015년 2월 8일 - 2015년 2월 14일)

(제3권 3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3 권 -2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2 월 8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이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4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일)

오늘의 말씀 (요 1:43~51)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벧새다 사람이라
45.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어해석하기

- (43절) 다음 날 (Τῆς ἐπαύριον)
 그가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였습니다 (ἠθέλησεν ἐξ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그리고 빌립을 발견했습니다 (καὶ εὕρισκει Φίλιππον.)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너는 나를 따르라 (ἀκολούθει μοι.)
- (44절) 그리고 빌립은 벧새다로부터 온 자였습니다 (ἦν δὲ ὁ Φίλιππος ἀπὸ Βηθσαϊδά.)
 (벧새다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온 도시입니다 (ἐκ τῆς πόλεως Ἀνδρέου καὶ Πέτρου.)
-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발견했습니다 (εὕρισκει Φίλιππος τὸν Ναθαναήλ.)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ὄν ἔγραψεν Μωϋσῆς ἐν τῷ νόμῳ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εὐρήκαμεν.)
 나사렛으로부터 나온 요셉의 아들 예수를 (Ἰησοῦν υἱὸν τοῦ Ἰωσήφ τὸν ἀπὸ Ναζαρέτ.)
- (46절) 그리고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Ναθαναήλ.)
 나사렛으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ἐκ Ναζαρέτ δύναται τι ἀγαθὸν εἶναι·)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Φίλιππος·)
 와서 보아라 (ἔρχου καὶ ἴδε.)
- (47절) 예수님이 그를 향해 나오는 나다니엘을 보셨습니다
 (εἶδεν ὁ Ἰησοῦς τὸν Ναθαναήλ ἐρχόμενον πρὸς αὐτόν)

- 그리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καὶ λέγει περὶ αὐτοῦ·)
 보라 진실로 그 안에 감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ἶδε ἀληθῶς Ἰσραηλῆτης ἐν ᾧ δόλος οὐκ ἔστιν.)
- (48절) 나dana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Ναθαναήλ·)
 당신이 어디로부터 나를 알았습니까?(πόθεν με γινώσκεις·)
 예수님이 대답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πρὸ τοῦ σε Φίλιππον φωνῆσαι)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ὄντα ὑπὸ τὴν συκῆν)
 내가 너를 보았다(εἶδόν σε.)
- (49절) 나dana엘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ἀπεκρίθη αὐτῷ Ναθαναήλ·)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ῥαββί, σὺ εἶ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σὺ βασιλεὺς εἶ τοῦ Ἰσραήλ.)
- (50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느냐?
 (ὅτι εἶπόν σοι ὅτι εἶδόν σε ὑποκάτω τῆς συκῆς, πιστεύεις·)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μεῖζω τούτων ὄμη.)
- (51절)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네가 열린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ὄψεσθε τὸν οὐρανὸν ἀνεωγῆτα)
 그리고 인자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καὶ τοὺς ἀγγέλους τοῦ θεοῦ ἀναβαίνοντας καὶ καταβαίνοντας ἐπὶ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제자,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제자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는 모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원래 스승인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시대를 마감하는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¹⁹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²⁰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²¹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²²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19-22).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번째 제자가 된 두 사람은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증거에 의해 예수님이 자신들이 따라야 할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로가 바로 성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또 다른 경로는 메시아를 먼저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 왔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 예수님께로 인도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소위, 모태신앙인이라 생각되는 분들은 부모님에 의해 예수님께 인도된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 받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세번째 방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빌립입니다. 43 절을 읽으십시오. 43 절을 보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본 것도 따르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빌립을 발견했고 그에게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언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믿음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라는 사실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의지적으로 믿기로 결심을 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상관없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예수님의 영=성령)이 직접 찾아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 예수님께 속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할 수도 있으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명령하심으로 그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는 모두 같습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한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난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당신은 자신을 온전히 부인했습니까? 당신 앞에 놓인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간단하게 당신의 느낌을 적어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와서 보십시오! (월요일)

오늘의 말씀 (요 1:43~51)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벧새다 사람이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월어해석하기

- (43절) 다음 날 (Τῆς ἐπαύριον)
 그가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였습니다 (ἠθέλησεν ἐξ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그리고 빌립을 발견했습니다 (καὶ εὕρισκει Φίλιππον.)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너는 나를 따르라 (ἀκολούθει μοι.)
- (44절) 그리고 빌립은 벧새다로부터 온 자였습니다 (ἦν δὲ ὁ Φίλιππος ἀπὸ Βηθσαϊδά.)
 (벧새다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온 도시입니다 (ἐκ τῆς πόλεως Ἀνδρέου καὶ Πέτρου.)
-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발견했습니다 (εὕρισκει Φίλιππος τὸν Ναθαναήλ.)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ὄν ἔγραψεν Μωϋσῆς ἐν τῷ νόμῳ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εὐρήκαμεν.)
 나사렛으로부터 나온 요셉의 아들 예수를 (Ἰησοῦν υἱὸν τοῦ Ἰωσήφ τὸν ἀπὸ Ναζαρέτ.)
- (46절)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Ναθαναήλ.)
 나사렛으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ἐκ Ναζαρέτ δύναται τι ἀγαθὸν εἶναι·)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Φίλιππος·)
 와서 보십시오 (ἔρχου καὶ ἴδε.)
- (47절) 예수님이 그를 향해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εἶδεν ὁ Ἰησοῦς τὸν Ναθαναήλ ἐρχόμενον πρὸς αὐτόν)

- 그리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καὶ λέγει περὶ αὐτοῦ·)
 보라 진실로 그 안에 감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ἴδε ἀληθῶς Ἰσραηλῆτης ἐν ᾧ δόλος οὐκ ἔστιν.)
- (48절) 나dana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Ναθαναήλ·)
 당신이 어디로부터 나를 알았습니까?(πόθεν με γινώσκεις·)
 예수님이 대답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πρὸ τοῦ σε Φίλιππον φωνῆσαι)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ὄντα ὑπὸ τὴν συκῆν)
 내가 너를 보았다(εἶδόν σε.)
- (49절) 나dana엘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ἀπεκρίθη αὐτῷ Ναθαναήλ·)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ῥαββί, σὺ εἶ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σὺ βασιλεὺς εἶ τοῦ Ἰσραήλ·)
- (50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네가 무화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느냐?
 (ὅτι εἶπόν σοι ὅτι εἶδόν σε ὑποκάτω τῆς συκῆς, πιστεύεις·)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μεῖζω τούτων ὄμη.)
- (51절)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네가 열린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ὄψεσθε τὸν οὐρανὸν ἀνεγρότα)
 그리고 인자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καὶ τοὺς ἀγγέλους τοῦ θεοῦ ἀναβαίνοντας καὶ καταβαίνοντας ἐπὶ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5 절을 읽으십시오. 빌립이 나dana엘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나사렛으로부터 나온 요셉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역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임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성경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천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성경이라는 살아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벧전 1:23).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 보십시오. 함께 큐티하는 분들이 있다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46 절을 읽으십시오. 빌립의 말을 들은 나dana엘은 “나사렛으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대꾸합니다. 이 질문은 냉소적인 표현이기 보다는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dana엘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설득되지 않은 믿음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질문을 던지는 태도는 오히려 믿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 중에 의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없는 자’로 낙인 찍히는 것이 두려워 그 의문에 대해 혼자 고민하거나 오히려 덮어버리지는 않나요?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해답을 구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되고 설득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잘못된 것도, 믿음없는 것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태도가 오히려 건전한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46 절 하반절을 읽으십시오. 빌립은 나dana엘이 자신이 한 이야기를 믿지 않자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빌립은 그와 논쟁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근거를 제시하여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단순하게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진리를 소개할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화요일)

오늘의 말씀 (요 1:43~51)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벧새다 사람이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어해석하기

- (43절) 다음 날 (Τῆς ἐπαύριον)
 그가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였습니다 (ἠθέλησεν ἐξ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Γαλιλαίαν)
 그리고 빌립을 발견했습니다 (καὶ εὕρισκει Φίλιππον.)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너는 나를 따르라 (ἀκολούθει μοι.)
- (44절) 그리고 빌립은 벧새다로부터 온 자였습니다 (ἦν δὲ ὁ Φίλιππος ἀπὸ Βηθσαϊδά.)
 (벧새다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나온 도시입니다 (ἐκ τῆς πόλεως Ἀνδρέου καὶ Πέτρου.)
-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발견했습니다 (εὕρισκει Φίλιππος τὸν Ναθαναήλ.)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ὄν ἔγραψεν Μωϋσῆς ἐν τῷ νόμῳ καὶ οἱ προφῆται εὐρήκαμεν.)
 나사렛으로부터 나온 요셉의 아들 예수를 (Ἰησοῦν υἱὸν τοῦ Ἰωσήφ τὸν ἀπὸ Ναζαρέτ.)
- (46절)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Ναθαναήλ.)
 나사렛으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ἐκ Ναζαρέτ δύναται τι ἀγαθὸν εἶναι·)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Φίλιππος·)
 와서 보십시오 (ἔρχου καὶ ἴδε.)
- (47절) 예수님이 그를 향해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εἶδεν ὁ Ἰησοῦς τὸν Ναθαναήλ ἐρχόμενον πρὸς αὐτόν)

- 그리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καὶ λέγει περὶ αὐτοῦ·)
 보라 진실로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ἴδε ἀληθῶς Ἰσραηλίτης ἐν ᾧ δόλος οὐκ ἔστιν.)
- (48절) 나dana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Ναθαναήλ·)
 당신이 어디로부터 나를 알았습니까?(πόθεν με γινώσκεις·)
 예수님이 대답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πρὸ τοῦ σε Φίλιππον φωνῆσαι)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ὄντα ὑπὸ τὴν συκῆν)
 내가 너를 보았다(εἶδόν σε.)
- (49절) 나dana엘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ἀπεκρίθη αὐτῷ Ναθαναήλ·)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ῥαββί, σὺ εἶ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σὺ βασιλεὺς εἶ τοῦ Ἰσραήλ.)
- (50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ῷ·)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느냐?
 (ὅτι εἶπόν σοι ὅτι εἶδόν σε ὑποκάτω τῆς συκῆς, πιστεύεις·)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μεῖζω τούτων ὄμη.)
- (51절)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네가 열린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ὄψεσθε τὸν οὐρανὸν ἀνεγρότα)
 그리고 인자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보게 될 것이다]
 (καὶ τοὺς ἀγγέλους τοῦ θεοῦ ἀναβαίνοντας καὶ καταβαίνοντας ἐπὶ τὸν υἱὸν τοῦ ἀνθρώπου.)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 나오는 나dana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진실로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은 나dana엘을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사’로 해석된 ‘도로스’(δόλος)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이 잘 모른다고 거짓된 주장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꾀사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dana엘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짐짓 아는 체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억지 논리를 동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들이나 성경교사들이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의 논리로 무장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데 그러한 행위들을 간사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변영신학이나 신비주의, 도덕주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최근에 들은 설교나 가르침 중 소위 ‘간사한’ 내용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많은 가르침과 진리를 어떻게 구별해 내고 있습니까?

48 절을 읽으십시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디로부터 나를 알았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예수님은 빌립보다 먼저 나다나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기 전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빌립을 통해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전도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당신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의 느낌을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49 절을 읽으십시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두 명의 서로 다른 실존주의자들의 고백 사이에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기법을 *Inclusio* 라고 부릅니다. 샌드위치나 액자의 틀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1:49),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20:28). 요한이 왜 이 두 현실주의자들, 실증주의자들의 고백을 첫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50절을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한 질문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 실증주의자들은 증거가 있어야 믿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온전히 입증된 것만 믿습니까? 체험을 통해 확실한 무언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근거를 말해보십시오.

5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열린 하늘의 의미와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8장의 야곱이 꿈에 본 환상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물을 포도주로 (1) (수요일)

오늘의 말씀 (요 2:1~12)

1.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와 그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5.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원어해석하기

- (1절) 그리고 세 번째 날에 (Καὶ τῆ ἡμέρα τῆ τρίτη)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습니다 (γάμος ἐγένετο ἐν Κανὰ τῆς Γαλιλαίας)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καὶ ἦν ἡ μήτηρ τοῦ Ἰησοῦ ἐκεῖ.)
- (2절)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습니다
(ἐκλήθη δὲ καὶ ὁ Ἰησοῦς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εἰς τὸν γάμον.)
- (3절)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καὶ ὑστερήσαντος οἴνου)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λέγει ἡ μήτηρ τοῦ Ἰησοῦ πρὸς αὐτόν·)
“포도주가 없습니다” (οἶνον οὐκ ἔχουσιν.)
- (4절)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여인이시여!” (τί ἐμοὶ καὶ σοί, γύναι·)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οὐπω ἤκει ἡ ὥρα μου.)
- (5절) 그의 어머니가 일을 돕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ἡ μήτηρ αὐτοῦ τοῖς διακόνοις·)
“당신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당신들은 행하십시오” (ὅ τι ἂν λέγη ὑμῖν ποιήσατε.)
- (6절) 그리고 거기에 여섯개의 물을 담은 돌항아리가 있었습니다 (ἦσαν δὲ ἐκεῖ λίθινα ὑδρία ἕξ)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따라 놓여져 있는 (κατὰ τὸν καθαρισμὸν τῶν Ἰουδαίων κείμενα.)
각각 2 또는 3 메트레타스를 담을 수 있는 (χωροῦσαι ἀνὰ μετρητὰς δύο ἢ τρεῖς.)
- (7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 “물항아리들을 채우십시오”(γεμίσατε τὰς ὑδρίας ὕδατος.)
 그들이 그것들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καὶ ἐγένευσαν αὐτὰς ἕως ἄνω.)
- (8절)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지금 물을 떠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ἀντλήσατε νῦν καὶ φέρετε τῷ ἀρχιτρικλίνῳ·)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οἱ δὲ ἤνεγκαν.)
- (9절) 그 연회장이 와인이 된 물을 맛보았습니다 (ὡς δὲ ἐγένευστο ὁ ἀρχιτρικλίνος τὸ ὕδωρ οἶνον γεγενημένον)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καὶ οὐκ ᾔδει πόθεν ἐστίν·)
 그러나 물을 떠온 일을 돕는 사람들은 알았었습니다 (οἱ δὲ διάκονοι ᾔδεισαν οἱ ἠντληκότες τὸ ὕδωρ·)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φωνεῖ τὸν νυμφίον ὁ ἀρχιτρικλίνος)
- (10절)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각 사람이 좋은 와인을 먼저 내놓습니다”(παῖς ἄνθρωπος πρῶτον τὸν καλὸν οἶνον τίθησιν)
 “술에 취했을 때에 저급[와인을] [내놓습니다]”(καὶ ὅταν μεθυσθῶσιν τὸν ἐλάσσω·)
 “당신은 좋은 와인을 지금까지 두었습니다”(σὺ τετῆρηκας τὸν καλὸν οἶνον ἕως ἄρτι.)
- (11절) 이일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의 처음을 만들었습니다
 (Ταύτην ἐποίησεν ἀρχὴν τῶν σημείων ὁ Ἰησοῦς ἐν Κανὰ τῆς Γαλιλαίας)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καὶ ἐφανέρωσεν τὴν δόξαν αὐτοῦ·)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κα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ὸ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 (12절) 그일 후에 (Μετὰ τοῦτο)
 그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κατέβη εἰς Καφαρναοὺμ αὐτός)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καὶ ἡ μήτηρ αὐτοῦ καὶ οἱ ἀδελφοὶ [αὐτοῦ]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그리고 많지 않은 날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καὶ ἐκεῖ ἔμειναν οὐ πολλὰς ἡμέρα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 즉,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어 자신을 계시하는 사역은 2장부터 시작하여 12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점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12절까지는 예수님의 첫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너무도 유명해서 기독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자주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사도 요한이 다른 공관복음과는 달리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것도 다른 사건보다 가장 먼저 기록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같은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는 식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는가,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는가를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쉽게 인본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의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1절에는 “...예수님이...그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결과는 포도주가 부족해서 망칠 뻔 한 잔치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방지할 수 있었다거나, 하인들의 순종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결과가 그렇다면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의도도 분명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영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믿음으로 영광에 반응하였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었다기 보다는 기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영광은 인간편에서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영광과 믿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먼저요 믿음이 그다음입니다. 영광을 통해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았다면 당신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접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결혼 피로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사건도, 술을 나르던 하인들을 위한 사건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을 위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기적 그 자체만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순종을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믿음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사건을 통해 보입니까? 보이지 않고 인간들의 노력만 보인다면 아직도 당신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물을 포도주로 (2) (목요일)

오늘의 말씀 (요 2:1~12)

1.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와 그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5.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 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원어해석하기

- (1절) 그리고 세 번째 날에 (Καὶ τῇ ἡμέρᾳ τῇ τρίτῃ)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식이 있었습니다 (γάμος ἐγένετο ἐν Κανὰ τῆς Γαλιλαίας)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καὶ ἦν ἡ μήτηρ τοῦ Ἰησοῦ ἐκεῖ.)
- (2절)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혼인식에 초대되었습니다
(ἐκλήθη δὲ καὶ ὁ Ἰησοῦς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εἰς τὸν γάμον.)
- (3절)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자 (καὶ ὑστερήσαντος οἴνου)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λέγει ἡ μήτηρ τοῦ Ἰησοῦ πρὸς αὐτόν·)
“포도주가 없습니다” (οἶνον οὐκ ἔχουσιν.)
- (4절)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ῇ ὁ Ἰησοῦς·)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여인이시여!” (τί ἐμοὶ καὶ σοί, γύναι·)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οὐπω ἤκει ἡ ὥρα μου.)
- (5절) 그의 어머니가 일을 돕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ἡ μήτηρ αὐτοῦ τοῖς διακόνοις·)
“당신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당신들은 행하십시오” (ὅ τι ἂν λέγη ὑμῖν ποιήσατε.)
- (6절) 그리고 거기에 여섯개의 물을 담은 돌항아리가 있었습니다 (ἦσαν δὲ ἐκεῖ λίθινα ὑδρία ἕξ)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따라 놓여져 있는 (κατὰ τὸν καθαρισμὸν τῶν Ἰουδαίων κείμενα.)
각각 2 또는 3 메트레타스를 담을 수 있는 (χωροῦσαι ἀνὰ μετρητὰς δύο ἢ τρεῖς.)
- (7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 “물항아리들을 채우십시오”(γεμίσατε τὰς ὑδρίας ὕδατος.)
 그들이 그것들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καὶ ἐγένευσαν αὐτὰς ἕως ἄνω.)
- (8절)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지금 물을 떠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ἀντλήσατε νῦν καὶ φέρετε τῷ ἀρχιτρικλίνῳ·)
 그리고 그들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οἱ δὲ ἤνεγκαν.)
- (9절) 그 연회장이 와인이 된 물을 맛보았습니다 (ὡς δὲ ἐγένευστο ὁ ἀρχιτρικλίνος τὸ ὕδωρ οἶνον γεγενημένον)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καὶ οὐκ ᾔδει πόθεν ἐστίν·)
 그러나 물을 떠온 일을 돕는 사람들은 알았었습니다 (οἱ δὲ διάκονοι ᾔδεισαν οἱ ἠντληκότες τὸ ὕδωρ·)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φωνεῖ τὸν νυμφίον ὁ ἀρχιτρικλίνος)
- (10절)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각 사람이 좋은 와인을 먼저 내놓습니다”(παῖς ἄνθρωπος πρῶτον τὸν καλὸν οἶνον τίθησιν)
 “술에 취했을 때에 저급[와인을] [내놓습니다]”(καὶ ὅταν μεθυσθῶσιν τὸν ἐλάσσω·)
 “당신은 좋은 와인을 지금까지 두었습니다”(σὺ τετῆρηκας τὸν καλὸν οἶνον ἕως ἄρτι.)
- (11절) 이일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의 처음을 만들었습니다
 (Ταύτην ἐποίησεν ἀρχὴν τῶν σημείων ὁ Ἰησοῦς ἐν Κανὰ τῆς Γαλιλαίας)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καὶ ἐφανέρωσεν τὴν δόξαν αὐτοῦ·)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κα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ὸ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 (12절) 그일 후에 (Μετὰ τοῦτο)
 그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κατέβη εἰς Καφαρναοὺμ αὐτὸς)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καὶ ἡ μήτηρ αὐτοῦ καὶ οἱ ἀδελφοὶ [αὐτοῦ]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그리고 많지 않은 날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καὶ ἐκεῖ ἔμειναν οὐ πολλὰς ἡμέρα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어제에 이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갈릴리 가나의 표적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적의 목적 즉,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킨 의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이적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그 자체에 집중하여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날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받아서 잔치에 참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손님으로 가십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한 손님으로 묘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 혼인 잔치에 참석을 했지만 예수님이 혼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읽으십시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사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에 초청한 신랑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님인 예수님이 포도주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말하였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 잔치라는 사건을 이용하여 자신을 계시하고자 하려는 강한 의도가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그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사실은 혼인잔치에서는 위기입니다. 이 말은 공동체 전체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위기란 포도주가 없어서 하객들이 더 이상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단순한 의미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 보다 훨씬 더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미 다 떨어져 버린 포도주는 누가 준비한 것이었습니까?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혼인 잔치가 한창인데 신랑이 준비한 포도주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가 만든 포도주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포도주는 유대주의, 즉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그것은 더 이상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라는 마리아의 말은 “구약의 시대가 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당신이 열어 주십시오.”라는 말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4절을 읽으십시오.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여인이여?” “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은 거의 암호에 가까울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입니까?(What to me and to you?)”로 직역되는 이 말씀은 당시 흔히 사용되던 관용표현입니다. 이 관용구는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로 번역하여 예수님과 이 일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일을 알렸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의도가 아닌 성경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여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불효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아들’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피소드는 단순한 잔치에서의 기적이 아니라 유대주의라고 하는 구시대 즉,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그런 시대가 가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 시대가 열림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만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낸 포도주가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 은혜의 포도주를 마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당신이 정성스레 담근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요 2:13~25)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 육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원어해석하기

- (13절)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Καὶ ἐγγύς ἦν τὸ πάσχα τῶν Ἰουδαίων),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καὶ ἀνέβη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ὁ Ἰησοῦς)
- (14절)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동전바꾸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Καὶ εὗρεν ἐν τῷ ἱερῷ τοὺς πολλοῦντας βόας καὶ πρόβατα καὶ περιστερὰς καὶ τοὺς κερματιστὰς καθήμενους)
- (15절) 로프를 가지고 채찍을 만드신 후에 (καὶ ποιήσας φραγέλλιον ἐκ σχοινίων)
 양들과 소들 모두를 성전으로부터 쫓아냈습니다
 (πάντας ἐξέβαλεν ἐκ τοῦ ἱεροῦ τὰ τε πρόβατα καὶ τοὺς βόας,
 그리고 동전바꾸는 자들의 동전을 엮으셨습니다 (καὶ τῶν κολυβιστῶν ἐξέχεεν τὸ κέρμα)
 그리고 테이블을 뒤집으셨습니다 (καὶ τὰς τραπέζας ἀνέτρεψε),
- (16절) 그리고 그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καὶ τοῖς τὰς περιστερὰς πωλοῦσιν εἶπεν)
 “이것들을 가져 가십시오” (ἄρατε ταῦτα ἐντεῦθεν),
 “나의 아버지의 집을 상인의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μὴ ποιεῖτε τὸν οἶκον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οἶκον ἐμπορίου.)
- (17절) 그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 (ἐμνήσθησα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ὅτι γεγραμμένον ἐστίν·)
 “당신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 (ὁ ζῆλος τοῦ οἴκου σου καταφάγεταί με.)
- (18절) 따라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당신이 이같은 일을 행하니 무슨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τί σημεῖον δεικνύεις ἡμῖν ὅτι ταῦτα ποιεῖς·)
- (19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이 성전을 무너뜨리십시오” (λύσατε τὸν ναὸν τοῦτον)
 “내가 삼일 안에 그것을 세울 것입니다” (καὶ ἐν τρισὶν ἡμέραις ἐγερῶ αὐτόν·)
- (20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이 성전은 사십육년간 지었습니다” (τεσσεράκοντα καὶ ἕξ ἔτεσιν οἰκοδομήθη ὁ ναὸς οὗτος·)
 “그런데 당신이 삼일안에 이것을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καὶ σὺ ἐν τρισὶν ἡμέραις ἐγερεῖς αὐτόν·)
- (21절)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의 몸의 성전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이었습니다
 (ἐκεῖνος δὲ ἔλεγεν περὶ τοῦ ναοῦ τοῦ σώματος αὐτοῦ·)
- (22절)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ὅτε οὖν ἠγέρθη ἐκ νεκρῶν·)
 그의 제자들이 그의 하신 말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ἐμνήσθησα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ὅτι τοῦτο ἔλεγεν·)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καὶ ἐπίστευσαν τῇ γραφῇ καὶ τῷ λόγῳ ὃν εἶπεν ὁ Ἰησοῦς·)
- (23절) 그가 예루살렘사람들 사이에 계실 때 (Ὡς δὲ ἦν ἐν τοῖς Ἱεροσολύμοις)
 유월절에 [계실 때] (ἐν τῷ πάσχα)
 그 명절축제에 [계실 때] (ἐν τῇ ἑορτῇ·)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증거를 목격하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θεωροῦντες αὐτοῦ τὰ σημεῖα ἃ ἐποίει·)
- (24절) 그러나 예수님 그 자신은 그들에게 믿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αὐτὸς δὲ Ἰησοῦς οὐκ ἐπίστευεν αὐτὸν αὐτοῖς)
 왜냐하면 그가 친히 그모두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διὰ τὸ αὐτὸν γινώσκειν πάντα·)
- (25절) 그리고 어떤 사람에서도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καὶ ὅτι οὐ χρεῖαν εἶχεν ἵνα τις μαρτυρήσῃ περὶ τοῦ ἀνθρώπου·)
 왜냐하면 그가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αὐτὸς γὰρ ἐγίνωσκεν τί ἦν ἐν τῷ ἀνθρώπῳ·)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유월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셔서 그곳에 있는 소와 양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십니다. 동전바꾸는 사람들의 동전을 엮으시고 그들의 테이블을 뒤집으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행할 진정한 이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초반부에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일기 쓰듯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행하고 가르치신 일들을 전체 논리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초반에 일어난 사건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13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1 장 19 절과 20 장 28 절을 통해 두 사람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수미쌍관법 (Inclusio), 또는 액자 구조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액자틀이 나옵니다. 액자 속의 액자인 셈인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2 장 13-25 절에서 유월절에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삼일만에 세우겠다는 말씀과 19-20 장에 걸쳐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 구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다나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유월절 (2 장):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

.....

유월절(19 장~20 장):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도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위 구조를 보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매우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은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양을 잡아 죽인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것에 대한 예표였지 실체가 아닙니다. 제물이 예표면 제물을 드리는 성전도 당연히 그림자요 예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액자 구조를 염두에 두고 다시 13 절을 읽어보십시오.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가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있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기 위해 올라가신 것입니다.

14-1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각종 장사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시고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희생 제물로 드러지기 위해 있던 양들과 소들을 모두 내어 쫓으시고 동전바꾸는 사람들의 테이블도 모두 엎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왜 예수님은 이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일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왕이 개축한 것으로 매우 화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전을 한번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동시에 희생 제물이라면 예수님이 청소하신 그 성전과 예수님이 쫓아내 버린 그 동물들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 다 모두 예수님의 상징적인 그림자일 뿐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상인의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외치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마치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보는 것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봉헌한 것을 추인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좁은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란 단순히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던 사람들을 일컬어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부와 권력을 일구어낸 사두개인들을 향한 선포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 말씀은 진정한 아버지의 집은 인간들이 야욕이나 채우는 그런 곳이 아니며 그렇게 만들지도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 경고는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성전을 무너뜨리라 삼일만에 다시 세우리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요 2:13~25)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엮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 육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원어해석하기

- (13절) 그리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Καὶ ἐγγύς ἦν τὸ πάσχα τῶν Ἰουδαίων),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καὶ ἀνέβη εἰς Ἱερουσόλυμα ὁ Ἰησοῦς.)
- (14절)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동전바꾸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Καὶ εὗρεν ἐν τῷ ἱερῷ τοὺς πωλοῦντας βόας καὶ πρόβια καὶ περιστερὰς καὶ τοὺς κερματιστὰς καθημένους.)
- (15절) 로프를 가지고 채찍을 만드신 후에 (καὶ ποιήσας φραγέλιον ἐκ σχοινίων)
 양들과 소들 모두를 성전으로부터 쫓아냈습니다
 (πάντας ἐξέβαλεν ἐκ τοῦ ἱεροῦ τὰ τε πρόβια καὶ τοὺς βόας,
 그리고 동전바꾸는 자들의 동전을 엮으셨습니다 (καὶ τῶν κολλυβιστῶν ἐξέχεεν τὸ κέρμα)
 그리고 테이블을 뒤집으셨습니다 (καὶ τὰς τραπέζας ἀνέτρεψε),
- (16절) 그리고 그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καὶ τοῖς τὰς περιστερὰς πωλοῦσιν εἶπεν·)
 “이것들을 가져 가십시오” (ἄρατε ταῦτα ἐντεῦθεν),
 “나의 아버지의 집을 상인의 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μὴ ποιεῖτε τὸν οἶκον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οἶκον ἐμπορίου.)
- (17절) 그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ἐμνήσθησα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ὅτι γεγραμμένον ἐστίν·)

- “당신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입니다”(ὁ ζῆλος τοῦ οἴκου σου καταφάσκει με.)
- (18절) 따라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당신이 이같은 일을 행하니 무슨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겠습니까?” (τί σημεῖον δεικνύεις ἡμῖν ὅτι ταῦτα ποιεῖς·)
- (19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이 성전을 무너뜨리십시오”(λύσατε τὸν ναὸν τοῦτον) “내가 삼일 안에 그것을 세울 것입니다”(καὶ ἐν τρισὶν ἡμέραις ἐγερῶ αὐτόν.)
- (20절)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이 성전은 사십육년간 지었습니다”(τεσσεράκοντα καὶ ἕξ ἔτεσιν οἰκοδομήθη ὁ ναὸς οὗτος·) “그런데 당신이 삼일안에 이것을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καὶ σὺ ἐν τρισὶν ἡμέραις ἐγερεῖς αὐτόν·)
- (21절)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의 몸의 성전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이었습니다 (ἐκεῖνος δὲ ἔλεγεν περὶ τοῦ ναοῦ τοῦ σώματος αὐτοῦ·)
- (22절)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ὅτε οὖν ἠγέρθη ἐκ νεκρῶν·) 그의 제자들이 그의 하신 말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ἐμνήσθησαν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ὅτι τοῦτο ἔλεγεν·)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καὶ ἐπίστευσαν τῇ γραφῇ καὶ τῷ λόγῳ ὃν εἶπεν ὁ Ἰησοῦς·)
- (23절) 그가 예루살렘사람들 사이에 계실 때 (Ὡς δὲ ἦν ἐν τοῖς Ἱεροσολύμοις) 유월절에 [계실 때] (ἐν τῷ πάσχα) 그 명절축제에 [계실 때] (ἐν τῇ ἑορτῇ)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증거를 목격하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θεωροῦντες αὐτοῦ τὰ σημεῖα ἃ ἐποίει·)
- (24절) 그러나 예수님 그 자신은 그들에게 믿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αὐτὸς δὲ Ἰησοῦς οὐκ ἐπίστευεν αὐτὸν αὐτοῖς) 왜냐하면 그가 친히 그모두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διὰ τὸ αὐτὸν γινώσκειν πάντα·)
- (25절) 그리고 어떤 사람에서도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καὶ ὅτι οὐ χρεῖαν εἶχεν ἵνα τις μαρτυρήσῃ περὶ τοῦ ἀνθρώπου·) 왜냐하면 그가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αὐτὸς γὰρ ἐγίνωσκεν τί ἦν ἐν τῷ ἀνθρώπῳ·)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이같은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증거를 보이겠습니까?” 여기서 증거를 보이겠냐는 말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요즈음 말로 노점상을 내쫓으신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당신이 노점상 단속을 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있느냐? 라고 물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그동안 관행으로 해왔던 양과 송아지를 팔고 동전을 바꾸는 일을 방해하고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표적)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성전을 지배하고 성전을 통해 권력을 향유하던 그룹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대제사장 직분을 독점해 왔고, 성전세와 각종 이권을 통해 그들의 배를 불려왔습니다. 그들의 종교 권력은 사실상 무소불위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권한을 가진 존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19-20 절을 읽으십시오. 앞서 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말로 대답을 대신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한, 자격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동문서답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 대한 타당한 대답이라면 유대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종교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생각했고,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과 일부 종교 귀족만이 성전 일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자신이 곧 성전이며, 그 성전이 세상에 온전히 계시되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이 죽고 부활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냄으로써 비로소 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므로 성전에 관한 권한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있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성전이 신성한 곳이며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런 식의 해석을 한다면 이 땅 위에 돌로 세운 곳을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는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21 절과 22 절을 읽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야로 믿고 따른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성전 곧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가능해집니다.

23- 25 절을 읽으십시오. 유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두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알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로 돌변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개인적 신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 잡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사로잡혀 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